

# 문학의 분단해소와 이북문학의 수용

- 통일문학의 형성과정을 위하여

노귀남\*

- I. 머리말
- II. 문제의 쟁점
- III. 실천을 위한 입론
- IV. 이북문학과 현실
- V. 통일문학 형성의 과제 - 이본정신

## 【요약】

이 연구는 가치가 다른 체제를 가지고 형성된 분단문학을 해소할 수 있는 메타이론을 탐색했다.

기존 리얼리즘이론으로 이북문학을 보면 리얼리티가 부족하고 도식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하기 쉽다. 이북문학은 이북에서 이뤄진 문학행위의 산물이며, 그 체제 속의 대응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북의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문학을 읽을 수 있는 개념으로 매개와 전형을 세웠다.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생산 주체가 의미를 만든다. 즉, 의미는 대상과의 양각 구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개입한

---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삼각구도에서 이뤄진다. 매개는 이것과 저것을 잇는 중간자를 의미함과 동시에, 중간자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생산 주체’를 포함하는 운동성을 갖는다.

의미 생산 과정에서 항상 주체(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선행 의미를 매개하여 변화를 끌어내는 후행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와 같은 의미생산 과정은 현실의 한계까지도 반영하여 진행되는 실천적 운동이다.

작품에서 전형은 현실과 역사에 대한 실천적 의미를 찾기 위한 징검다리, 즉 매개성을 갖는다. 매개적 전형은 행위주체인 내가 내 행위결과[의미]에 대해 하는 성찰과 반성을 포함한다. 이때, 우리가 추구하는 문학은 현시점에서 값하는 실천으로서의 문학, 실천적 리얼리즘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요컨대 행위 주체의 비판적 개입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한다는 말이다.

이런 작업 속에는 문학과 현실을 매개하는 노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북문학 이해도 이북사회 변화와 상호관계 속에서 읽어야 한다. 문학을 통해서 사회변화를 읽음으로써 공식 교류에서보다 더 깊숙하게 미시적인 주민생활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와 소통이 바로 통일문학의 과정이다.

## I. 머리말

나는 만해 한용운을 연구했는데, 이남문학보다 이북문학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sup>1)</sup> 남과 북이 문학사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이질적이어서 그것을 밝혀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 이론적으로

1) 남한, 북한을 중립적인 이남, 이북으로 쓰기로 한다.

남북문학 통합의 길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찾아보고 싶었다. 지금은 문학보다 이북사회의 미시적 변화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관점은 문학에서 실천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이며, 그래서 때로는 문학을 잊고 현장으로 쫓아가기도 한다. 문학에서 실천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대해서는 한용운 시를 ‘상(相)’이란 개념을 빌려 해석하면서 탐색한 바 있다.<sup>2)</sup> 이 문제를 이북문학에 적용할 때는 ‘매개’와 ‘전형’의 개념으로 원용하여 해석했다.<sup>3)</sup>

이 글은 앞의 연구를 개고하고 보완하면서 통일문학을 지향하는 이론적 틀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의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고, 두 번째로 문학의 분단해소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북문학과 현실을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 과제를 던져보고자 한다.

‘의미’ 또는 ‘가치’<sup>4)</sup>에 대한 신념과 회의, 이것은 남북의 문학에서 큰 차이를 낳는 지점이다. 이북문학은 당문학으로서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에 대한 회의는 없다. 바꿔 말해, 주제를 모호하게 만들지 않는다. 반면, 이남문학은 목적과 방법에 대한 일치된 미학도 없고, 어떤 의미도 절대적 권위를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며, 작가는 회의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의미를 찾게 된다. 민중문학, 민족문학이

2) 노귀남, 「한용운 시의 ‘상(相)’ 연구-시집 『님의침묵』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 대학원, 1996.2.

3) 노귀남, 「통일문제 문학과 현실의 거리-북한소설에서 ‘실천적 리얼리즘’의 모색」,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1998.

4) 의미는 절대적인 것일 수 없다는 뜻에서 가치 개념이 들어간다. 해석학에서, 그 의미는 ‘significance’에 가까우며, 이 말과 구별해서 meaning은 명확하고 불변하다는 것으로 본다. 이때 의미는 W.K.Wimsatt와 Monroe C. Beardsley가 말한 ‘의도의 오류(intentional fallacy)’에 대한 반론으로, E.D. Hirsch가 말한 ‘작가가 의도한 언어 의미’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작가의 가치관에서 굴절해 나오는 ‘상대적인’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1980년대 문단에서 우위를 차지했던 것처럼, 역사의 한 시점에는 신념이 통하는 문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역시 오래가지 못했고, 해체의 문학이 유행하고, 최근에는 근대문학 종언론으로 문학계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sup>5)</sup>

정통문학이 의심받으면서도 문학이라는 장은 계속 존재한다. ‘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왜 남는가. 이것이 가지는 의의가 이북문학에서 선명하게 드러내는 ‘신념’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동질성이 있는가. 우리에게 통일문학사는 가능한가. 거칠게 말하면, 이북에서 신념은 유일사상으로 세운 체제에 따라 흔들림 없이 확고한 반면, 이남에서는 가치의 절대적 중심이 없이,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 다양성은, 단언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이 흔들림과 회의를 세계 속에 던져 놓는다. 그렇지만 남북 양쪽에 각기 ‘문학세계’가 있기에 ‘문학’이라는 틀로는 최소한의 공유향을 얻는다.

이런 단편적 이해로는 체제의 이질성만큼이나 먼 남북 문학이 진정으로 만날 길은 없다고 본다. 삶의 현장에는 상호방문, 경제교류와 같은 만남을 통해 동질성도 이질성도 의미로 다가온다. 이 점은 문학도 마찬가지로 만남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시인, 소설가가 상호방문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 의미와 함께 문학적 방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론적 틀로서 ‘문학행위’를 축으로 삼아서, 남북 문학을 아우를 수 있는 메타이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5) 조영일, 「이젠 ‘그들만의 문학’...근대문학은 끝났다」, 『한겨레』, 2007.10.20.  
최원식, 「근대문학 종언론은 상상 혹은 소동일 뿐」, 『한겨레』, 2007.10.27.

## II. 문제의 쟁점

문학에서 실천, 즉 문학행위를 어떻게 입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출발한다. 중요한 문제점을 먼저 짚어보기로 하자.

이북문학을 우리 대중이 접하게 되고 문단에서 수용한 초기에는 ‘북한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하였다.<sup>6)</sup> 이것은 반공과 멸공에서 화해로 가는 현실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었다. 또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매우 다르게 인식되고 평가되어 왔다’는 점에서 ‘시각’이 문제적이기 때문이었다.

이북문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각’을 확보하는 문제로, 김재용은 ‘북한 문학 검토할 때 연구자는 역사주의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sup>8)</sup>고 했다. 그의 접근은 텍스트의 문제를 비롯해 사실에 대한 시각의 엄격성, 객관성, 실증성 등을 중요시하는 ‘실증적 역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은 사실(facts)과 가치(values)를 과연 구분할 수 있는냐는 점이다. 김재용이 주장한 시각은 근대 민족문학이라는 역사적 시각, 탈냉전의 시각, 리얼리즘 본래적 시각 등에 입각한 역사주의이다.<sup>9)</sup> 이북문학을 ‘근대 민족문학’이라는 역사의 도정에 놓을 때, 근대와 민족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전제해야만 한다. 탈냉전의 다음에도, 리얼리즘의 근본에 대한 것도 역시 가치 개념이 들어가야 성립할 수 있다. 말하자면, 사실을 의미로 포착함과 동시

6) 노귀남, 「북한문학의 혁명전통과 전형의 변화」, 『새국어교육』 제54호, 1997, 598-600쪽 참조.

7)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25쪽.

8)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14쪽.

9) 위의 책, 11-15쪽 참조.

에 어떤 가치가 개입하게 된다는 뜻이다. 시각은 필연적으로 연구 방법론 또는 이론으로서의 ‘가치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온전할 수 있다. 그렇다고 ‘시각’의 문제를 ‘연구방법론’과 개념을 혼동시킬 수 없다. 이 둘이 구별되지 않음으로써, 연구는 자칫 이복에 대해 긍정적·비판적·부정적 입장을 차별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

결국, 사실과 가치의 문제, 또는 앞에서 제기했던 신념과 회의의 문제를 포함해서 자료와 텍스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론이 중요하게 된다.

이복의 문학사에서 조기천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자.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문학에서 조기천의 장편 서사시 『백두산』은 ‘수령형상문학’의 최고봉으로 꼽힌다. 그런데 조기천은 주체문학론이 확립되기 훨씬 전 6·25전쟁 중에 죽었다. 수령형상문학이라는 후대의 개념을 그 이전 작품에 적용해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작가 세계에 대한 총체적 조망에 따라 이뤄져야 할 작업이다. 그렇지 못할 때, 작품 중의 한 부분을 작가와 작품의 전체 문맥과는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많아진다. 이 점을 염두에 둘 때, 조기천의 수령형상문학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 작가론이 먼저 이뤄진 뒤에 그에 따라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수령형상문학의 최고봉이란 평가에 대한 평가는 유보될 수밖에 없고, 문학사에서 조기천에 대한 진정한 자리를 기는 하기란 쉽지 않다.

이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이복에서 수령형상문학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천을 평가했느냐는 접근의 관점, 즉 가치문제에서 점검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조기천 작품에서 ‘인민성’을 매개로 하면, 이복문학사 전체 속의 맥락을 잡을 수 있다. 이복에서 ‘인민성의 원칙’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 그것은 고정된 가치가 아니라 각 시기마다 강조점이 달라졌다. 조기천 당대 인민성의 의미와 후대에 변모된 의미와의 거리를 비평하는 가운데 문학사적

흐름이 파악되고, 거기에 따라 개별 작품의 맥락을 잡아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인민성’이라는 의미에 보편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이것을 매개자로 하여 부분 연구에서 총체성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또 문제는 ‘어떤’ 가치일 때 가장 보편타당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냐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주최 「남북한 현대문학사 서술의 방향」에 대한 학술 세미나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김윤식은 카프문학의 정통성과 남북 문학사의 연속성을 위해 ‘근대성’이란 개념에 관심을 둔다.<sup>10)</sup> 반면, 최동호는 남북 현대문학사 서술에서 ‘근대성 극복’의 논리로서, 우리 시각으로 통괄할 ‘민족문학’의 확립을 요구한다. 근대성 극복은 전통 부정에 대한 반론과 민족의 주체적 역량에 기초하여 세계로 향하는 역사의 흐름을 가늠함을 뜻했다.<sup>11)</sup>

그런데 근대성을 통한 문학사 통일로 갈 것인가. 근대성의 극복을 통한 민족 공동체 회복 또는 민족문학의 통일로 갈 것인가. <근대성> 설정은 이북문학을 한국근대문학사의 연속선상에 놓을 수 있는 길을 트고, 남북 문학에 공통되는 매개항을 설정했다는 방법론상의 강점을 갖는다. 그러나 문제는 1967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유일사상의 혁명문학을 문학사에서 대부분 배제시켜야 하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개별 작품 이면에 숨겨진 진실 내지 가치는 무시되고, 문학과 사회를 일치시키는 당문학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이북 사회와 문학을 심층적 분석 없이 단순 대응시키는 오류를 낳고 만다. 이 점에서 ‘근대성’이란 가치

10) 김윤식, 「남북한 현대문학사 서술 방향에 대한 예비 고찰—위기의식의 두 양상」, 『민연학술세미나』, 1995.8.29.

11) 최동호, 「남북한 현대문학사 서술을 위한 몇 가지 시각」, 『민연학술세미나』, 1995.8.29.

는 남북 문학 전체를 보는 데 상당한 편견과 배제의 논리가 있음을 확인시킨다. 서구적 가치인 근대성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북문학은 통합 이전에 해체되어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근대성 극복과 민족 문학의 논점에서 남북 현대문학사를 서술할 때도, 전제한 논리를 충족시킬 이론을 마련하지 못하고, 남북 문학의 시기는 공통되게 나누되, 문학적 전개는 따로 다루는 한계를 보였다.<sup>12)</sup>

여기서 우리는 문학 분석과 이론들에서부터 이북문학에 내재된 가치를 매개하여 출발할 필요를 확인한다.<sup>13)</sup> 아울러, 출발은 내재된 가치를 매개하지만, 그것을 남북 문학 일반으로 확장하는 이론의 틀로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이북문학 안으로 묻혀버리고 만다. 즉, 이북식으로 이해하고 끝이 나는 격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의 길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가치 세계'를 지향할 때, 그 개념을 다룰 수 있는 메타이론적 측면의 성찰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그런 모색으로, 백낙청의 '분단체제'<sup>14)</sup>의 개념은 주목할 만했다. 이것은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분단사회의 성격을 이론화할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이 개념은 남북 두 개의 분단사회를 망라하는 특이한 복합체이다. 동시에, 한반도 바깥 세계와 단절된 체계가 아니라, 분단의 생성과 재생산의 과정에서 외국세력과 관계로 설명되는 개념이다.

12)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서울: 나남출판, 1995)에서 분단체제의 성립, 심화, 변화의 세 시기로 구분해 남북 문학을 비교함.

13) 예를 들면, 이북문학의 '인민성의 원칙'에서 '인민성'을 '민주'라는 가치 개념으로 보고 작품분석을 하는 경우 시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북에서 쓰는 인민성의 개념은 당성과 계급성과 일치된 틀 속에 있지만 해방공간에서부터 보면 현재와는 다른 각도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14)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13-40쪽.

이 분단체제의 개념에 대해, 윤지관은 민족문화론과 결합시켜 그 이념과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색했다. 그는 분단체제의 설정이 가지는 효용성과 실천성을 강조했다. 분단체제 설정의 효용성은 한반도 전체의 시야에서 민족적인 이해의 성격과 그 주체를 조망함으로써, 남북 체제 각각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남북 민족구성원의 연합이 가능하고, 또 반민주적·반민중적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과 그 극복의 전망이 열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민족의 분단’으로 인식한 경우의 통일과, 세계체제와 관련된 ‘분단체제’에 대해 인식한 경우의 통일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앞의 통일은 그 후 자본주의적인 세계체제라는 더욱 강력한 체제의 억압이나 질곡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분단체제론은, 자본주의체제가 세계체제로서 드러낸 현 시점의 문제를 극복하는 전망과 극복운동까지 포괄하여, 이것을 현단계 통일운동 속에 담보하는 복합적인 인식을 가능케 한다. 이로써 그 실천 중에 사회주의 몰락 이후 세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통일 이후 민족국가의 상을 고려하여 현단계 운동을 진전시킨다는 것이다.<sup>15)</sup> 따라서 민족문학의 이념은 단순히 민족 통합만이 아니라, 세계체제 내에서 변혁적인 힘까지 담보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윤지관이 말한 민족문학의 <실천>은 전환기적 삶의 실상에 다가가는 리얼리즘의 실천이면서, 세계체제의 모순을 넘어설 전망까지 가지는 진정한 탈근대적인 지향도 동반하는 것이다. 이때 리얼리즘의 개념과 범위는 ‘탈근대적 지향’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그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봐야 하는데, 사실은 이 지점에서 다시 원론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만다는 점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즉, ‘탈근대적 지향’이 세계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

15) 윤지관, 「통일을 실천하는 문학—민족문학의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리얼리즘의 옹호』, 서울: 실천문화사, 1996, 17-18쪽.

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포한 역사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서구적 발전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 그 폭을 넓혔던 리얼리즘의 개념과 범위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탈근대적 지향’이라는 것은 세계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안티테제로서 지향해 가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대/탈근대라는 서구의 변증법적 논리를 포기하는 데서, 다시 말해 전혀 새로운 역사적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데서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서, 윤지관이 설정한 <실천>의 의미에서 이북문학을 살펴보자. 그가 말한 리얼리즘의 평가대로라면, 이북의 문학이야말로 “인간을 기존사회나 체제에 순응시키는 이데올로기적인 체제내화 논리에 가장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문학”<sup>16)</sup>이다. 이런 평가에서, 삶의 현실을 ‘반영’하고 ‘생산’하는 리얼리즘적 의미는 미미해진다. 윤지관이 지적한 ‘체제에 봉사하는 문학’으로는, ‘세계체제의 모순을 넘어설 전망까지 가지는 진정한 탈근대적인 지향도 동반하는 리얼리즘적 실천’이 안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환기적 삶의 실상에 다가가는 리얼리즘의 실천’조차도 어렵다는 말이다.

그가 말한 리얼리즘의 개념과 실천 범위는 ‘탈근대적 지향’까지 포함하여 넓어진 것이고 앞으로 나아간 것이었다. 그런데 이북문학에서는 리얼리즘적 의미가 축소되는 것으로 보는 윤지관의 관점을 지지해도 좋은가. 이북에서 생산되는 문학이 당정책에 좌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뒤집어보면 이북문학 또한 현실과 관계 속에서 왜곡된 형태로 인민의 삶을 반영하는 시대산물이다.

또한, 리얼리즘적 실천의 진전에서 이북문학이 역행하는 것을 “통일문학”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 지점에서 가

16) 윤지관, 위의 책, 30쪽.

치의 문제, 메타 이론적 모색이 진지하게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 ‘가치 문제’는 삶과 현실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의미를 문학에 담아내는 것을 뜻한다. 이때 ‘문학 속의 실천’과 ‘실천 속의 문학’이 분리되지 않고, 진행형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문학, 즉 역사 과정에 버금가는 문학사 과정을 이룬다. 여기서 그 내용은 물론 통일 문학 또는 남북 공존의 길을 찾는 일일 게다.

이런 뜻에서 작업하는 이 논문 가운데 이론상의 핵심어는 ‘문학 행위’, ‘문학행위 주체’를 축으로 하는 ‘매개’와 ‘전형’의 개념이다. 이 용어는 기존 리얼리즘 문학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실천이 가지는 ‘지금여기’의 문제를 역동적으로 담지는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시도한다.

한편, 그 동안 이북문학에 대한 비평과 연구가 꽤 많이 있었지만, 대개 ‘들여다보는’ 입장에 머물러 있다.<sup>17)</sup> 최근 성과로서, 북한연구학회에서 북한학총서로 엮은 논문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치,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이북사회 현실변화를 반영하려고 애썼다.<sup>18)</sup> 이북사회 내에서 진행 중인 문학 동향을 따라잡고, 통일문학의 관점에서 남북문학을 포괄해야 할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연구들은 진일보를 의미한다. 여기서 남북문학의 통합과정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입장’과 ‘시각’의 수준을 넘어서는 진지한 메타이론적 논쟁이 요구된다.<sup>19)</sup>

이런 가운데 2005년 7월 평양, 백두산, 묘향산 등지에서 남북 문인 200여 명이 참석하여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

17) 김종하 편,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서울: 국학자료원, 2005)는 장을 ‘북한 시문학 들여다보기’ 등으로 나누면서, 이북문학을 보는 시각과 태도의 문제를 서론에 제기했다.

18)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언어와 문학』, 서울: 경인문화사, 2006.

19) 김성수는 ‘통일문학을 위한 포괄적인 미학원리’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한 근현대문학사의 비교와 통합방안」,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언어와 문학』, 331쪽.

가 분단 이후 처음 열리고,<sup>20)</sup> 2006년 10월 30일 금강산에서 ‘6.15 민족문학인협회’가 결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통일문학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합의가 없었지만, 통일문학상을 제정하고 『통일문학』 잡지를 공동편집해서 발간하기로 합의했다. 쉽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문학인들이 통일문학의 길을 열어가게 되었다. 통합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김성수는 양측의 이질성에 당황하지 않고 ‘서로 다른 것들끼리의 소통, 즉 통이(通異)의 과정’이라는 정도상의 말을 인용하며 ‘이북의 지역문학’과 동거를 제안했다. 즉, 이북문학은 ‘문학적 영토의 확장’이라는 개념에서 ‘그 자체로 근대문학 혹은 현대문학이며 코리아반도문학의 일부인 지역문학, 지방문학’이라는 뜻이었다. 이 관점은 한민족문학을 ‘한국어문학’으로 넓혀 그 동안 ‘이남문학’만을 문학사로 했던 틀을 남북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속의 한국어문학을 포섭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관점 역시 ‘동거’는 가능하지만 ‘동상이몽’에는 속수무책이 된다. 동거하여 과정을 ‘만들어가는’ 메타이론적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문제이다.

### Ⅲ. 실천을 위한 입론

#### 1. 매개: 의미생산 주체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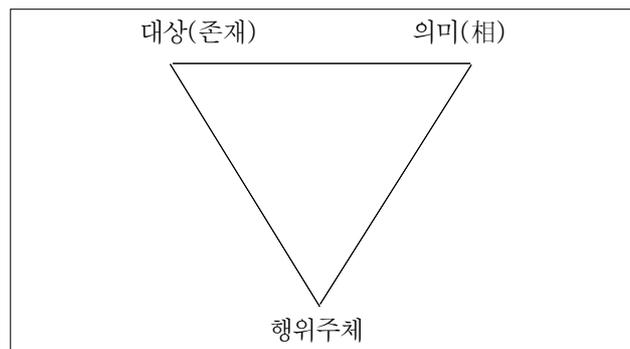
공존은 역사 주체인 우리가 살 길이다. 그 길은 남과 북이 각각 <우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역사에서 우리를 죽이고 살 길

20) 남북 문학인 교류 과정과 이슈는 여기에 참가했던 김성수의 발제 「2007년 남북정상선언과 문학분야 교류 협력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최, 『2007 남북정상회담 성과 분석 및 문화분야 후속과제 개발』(제46차통일문화정책포럼, 2007.10.25)을 참조함.

은 없다.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수렴시킬 것인가가 메타이론의 관건이 된다. 또 경험 현실과 문학 현실이 어떻게 매개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그래서 주체, 매개, 전형 등의 개념을 방법론의 중추로 삼고자 한다.

문학에서 주체는 문학행위 주체이고 문학적 의미생산 주체이다. 그 생산에는 쓰기 이외에 <읽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서구에서 독자심리, 독자반응 비평 또는 수용미학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한다.<sup>21)</sup> 여기서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범위를 넘어서므로, 의미 생산에서 주체의 개념을 입론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앞에서, 조기천 문학을 ‘수령형상문학’에 초점을 맞춰 볼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평가의 결과를 두고 시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의미의 결과가 아니라, 의미가 생산되는 과정에 생산주체가 개입하는 데 있다. 의미는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대상에 대해 작용(실천/행위)하는 데서 얻어지는 결과이다. 즉 의미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나온다. 이것을 의미의 삼각 구도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21) 본문에서 언급되는 서구 문학이론이나 개념은 내가 논하고자 하는 메타이론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수단이다.

이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상 자체가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木)과 주체(目)의 관계가 ‘모습(相) 곧 존재’인 점이다. 의미는 대상과의 양각 구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개입한 삼각구도에서 이뤄진다.

이것은 서구적 ‘객관세계’의 개념에 집착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주체를 복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때 세계의 존재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행위와 함께 끊임없이 움직이는 개념이다.

이런 뜻에서, 의미는 ‘객관세계’에 놓여있는 정태(靜態)가 아니며, 존재의 객관적 실체는 없다. 우리가 포착하는 것은 주체의 작용으로서의 존재의미[상]이다. 존재는 주체의 실천(작용)에 의해 규정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존재 의미를 <본질(이데아)>과 <현상>으로 분리하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다. 굳이 말한다면, 이 둘은 서로 매개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인식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즉 인식이란 대상을 하나의 존재로 괄호치기 해서 ‘객관적’이라 전제하고 그 존재에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것을 말한다. 이때 매김하는 ‘존재’ 또는 ‘존재의 의미’는 작용(움직임, 실천)의 문제를 배제시킨 ‘관념상의 대상’이 된다.

한편, 존재를 괄호치기 하지 않고 현상 가운데서 바로 보는 인식도 있다. 즉, 존재에서 작용을 분리시키지 않음으로써, 작자(作者, 주체)의 작용이 곧 존재임을 아는 것이다.<sup>22)</sup> 이 작용의 결과를 <의미>라고 하고, 의미로 포착하기 이전의 대상(현실 속의 사실)을 <존재>라고 할 때,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끊임없이 작용이 있고, 그 결과로 자꾸 다른 의미가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존재도 의미도 모두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의미>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의미는 고정된 것이

22) 이 측면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곧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마음은 물질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아니라는 뜻에서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차연(差延, diffe'rance)이란 말로 의미를 대신했다. 이 말은 '다르다'라는 의미들의 <차이(差異)>와, 동시에 지금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져 흘러 뿌려진다는 <연기(延期)>의 효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곧, 의미란 '이것이다'는 존재를 부정하는 데 있다. 회의와 해체로 요약되는 후기 구조주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은 관념론이나 본질론의 허상을 깨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주체와 역사 문제까지 회의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주체와 현실과 역사를 이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문제를 <매개>라는 개념으로 풀어 보자.<sup>23)</sup> 우선, 고정되지 않는 <의미>의 개념을 <상>으로 대체한다. 상은 '움직임' '작용' '작자가 지어서 만든 것' '주체가 개입한 결과' 등의 상황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주체>라는 개념을 의미 속에 세울 수 있게 한다. 또, 상은 주체의 작용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서 잠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하나의 <존재>임과 동시에 '다른 것'으로 이행하는 <매개>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는 순간, 이것이 매개되어 다른 의미로 움직여서 또 다른 존재를 낳는다. 그러므로 상은 하나의 매개자로 인식되는 것이다.

요컨대, 모든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매개자로 작용한다. 상은 주체가 개입하여 움직이는 의미라는 뜻에서 <의미상>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 역동해 가는 뜻에서 <매개상>이라 할 수 있다. 즉, 주체의 작용(실천)은 의미 <생산 작용>이자 <매개 작용>이 된다. 상이 의미의 다른 말이면서, 매개자일 수 있다는 뜻은 '대상'과 한 주체자의 '의미상'을 결합시키기 때문이다.

존재와 의미, 현상과 본질, 사실과 현실, 또는 현실과 문학 등에

23) 상과 매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노귀남, 「한용운 시의 '상' 연구」(1996), 39-53쪽 참조.

서 둘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좁히느냐 하는 ‘인식의 매개자’ 문제를 <상>을 설정함으로써 풀어나가는 이익은 무엇인가. 상은 존재, 인식, 실천의 문제를 동시에 본다는 ‘일원론’의 강점이 있다.

매개를, 왜 <상>이라는 일원론적 구조 속에서 말하는가. 본질과 현상의 일원론적 구조 가운데에서 말하는 <매개>는, 결합 과정 이후 제3개념으로 밀려나가는 촉매 같은 것이 아니라, 매개시키는 두 항 속으로 녹아들면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개념이다. 전통 목공에서 한 나무판과 다른 나무판을 접합하는 못의 개념은 매개이면서 바탕이기도 한다. 나무 자체의 바탕으로 보면 못이란 매개는 바로 나무 바탕과 같아진다. 매개하는 못이 바탕과 둘이 아니게 된다. 이와 같이 현상의 매개상<sup>24)</sup>을 통해 행위주체는 무한히 새로운 의미상(의미, 존재)을 생산한다.

현실에 대한 문학의 관점을 설명할 때, 일원론과 이원론의 인식의 차이는 크다. 상으로 접근하는 현실은 행위주체와 함께 엮어나가는 현전하는 의미로 역동하는 것이며, 관념으로 설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플라톤식의 인식으로 말하면, 현실에서 보는 존재 현상에서는 현상 자체가 바로 진리의 본체라고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상은 무수히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무수한 본체(이デア)가 있다고 해야 하는 모순을 낳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므로 자체의 본 모습인 ‘실상(實相)’을 자신의 바깥에서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고자 현상을 부정하고 ‘이デア’를 따로 세우는 인식론을 택했을 것이다. 그러면 정작 현상의 문제는 배제하는 꼴이 되어서, 다시 문체가

24) 하나의 상은 다른 상을 만드는 주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의 개념은 매개상(대상)이며, 또한 행위의 결과인 의미상이다. 그래서 상은 주체의 행위에 따라 무한히 생산되어 벌어지는 개념이다. 이것을 個別相 또는 別相이라 한다. (『대승기신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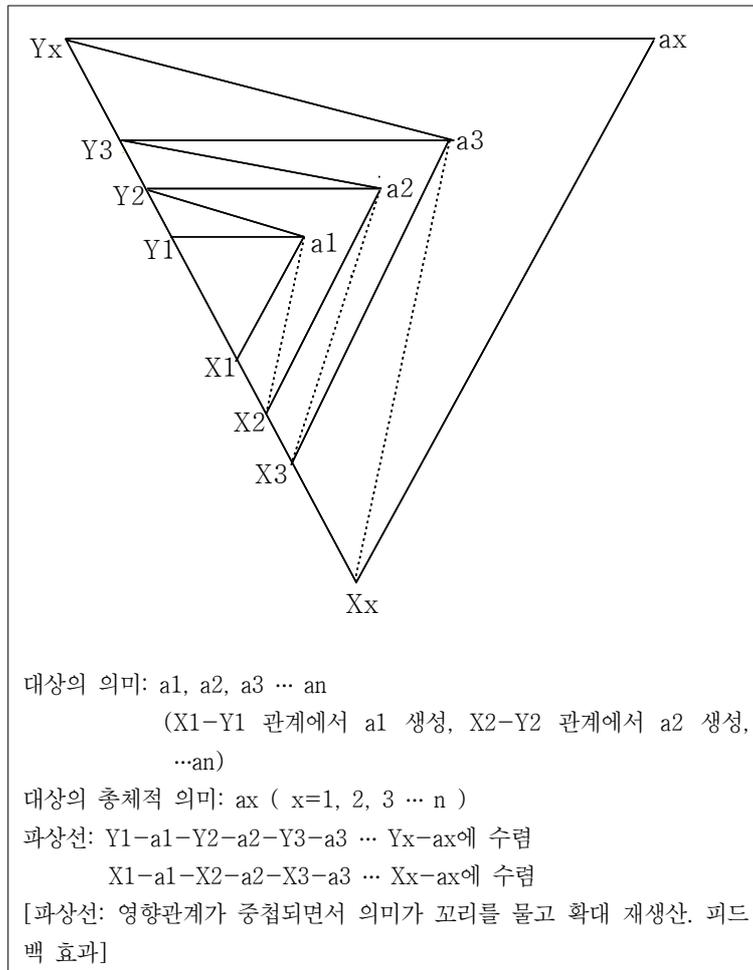
된다. 이것이 이원론의 한계이다. 우리에게서 현상과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일원론이다. 이것은 대상과 주체의 관계 속에 현상의 실상이 있다고 본다. 이때 현상의 변화는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주체와의 관계’가 바뀌는 것이다. 상에서 존재, 인식, 실천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상이란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문학행위주체를 현전시키고, 동시에 현실을 실천 관계로 바로 끌어오기 때문에 현실주의 문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열게 한다. <상>은 역사 주체를 이론적으로 수렴시킨다. 우리가 행위하는 만큼 현실 역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포괄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서구적 존재론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통일을 포함한 진정한 역사의 전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 2. 전형: 행위결과[의미]에 대한 성찰과 반성

앞에서 의미를 상이란 개념으로 바꿔 말했다. 따라서 아래에 쓰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상이란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다. 상은 주체의 행위가 개입된 의미이다. 이것을 제1차 의미 생산이란 뜻에서 <상1>이라 하면, 다시 주체의 실천 가운데 상1은 매개자가 되어 제2차 의미상을 만든다. 이것을 <상2>라고 하면, 주체의 작용(실천)이 멈추지 않는 한, 의미상은 상3, 상4.....상n으로 역동하게 된다. 이 역동성은 <생산 작용>이자 <매개 작용>이다. 이때 각각의 상을 단위의 의미상이란 뜻에서 개별상(또는 別相)이라고 한다. 이 의미상의 매개성을 통해 총체적인 의미를 총지(總持)한다는 뜻에서, 이 모든 의미를 총체상(總相)이라고 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a=상(의미), X=주체, Y=대상(존재)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 개별 의미는 하나씩의 상으로, 총체적 의미는 상의 총합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총합은 단힌 구도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별상이 어디까지 매개되느냐에 따라 총체적 의미가 선다.

예를 들어, 단발령으로 상투를 자른 역사의 한 사실을 의미 규정

해 보자. 상투를 하나의 ‘상징’으로 인식할 때, 그 원관념은 조선의 정신이고, 자르는 행위는 가장 조선적인 것의 거세로 읽힐 수 있다. 상투와 단발에 매개되어 있는 숨은 의미를 그렇게 읽는 것은 집단의 관습이다. ‘상투’의 의미에서처럼, 숨어있는 어떤 의미를 <누구나> 그 의미로 생산해 낼 수 있을 때, 이것을 ‘전형’ 또는 ‘전형적’이라고 한다. 무궁화는 한국을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전형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의미는 매우 상투적인 것이어서 또 다른 의미를 생산할 수 있는 매개가 막혀 버린다. 그 의미의 매개성이 매우 단편적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단편적 전형>이라고 이름붙이기로 한다.

한편 단발령의 심층적 의미를 더 찾아보자. 상투를 잘랐으니, 이 발소를 찾아 가야 하고, 머리 모양이 달라지니 한복도 벗어던지고 양복으로 맞춰야 하고, 또 신발까지 구색을 갖추어야 한다. 의생활, 소비생활, 의식, 문화가 식민지 자본주의 시장 쪽으로 완전히 뒤집어진다. 상투 하나 자른 것이 자꾸 다른 의미를 ‘매개시켜’ 총체적인 한 역사의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 이 경우 상투 자르기의 의미는 자본 침탈 역사를 말하는 하나의 <전형>이 된다. 즉, 한 의미가 매개적으로 재생산되어 총체적인 의미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때 의미는 매우 다층적인 매개를 통해 이뤄지므로, 이런 것을 여기서 <매개적 전형>이라고 이름하기로 한다.

앞에서 의미의 <매개성>을 입론할 때, 의미 생성 구조를 <상>을 끌어와 설명함으로써, 그 성격을 일원론적 매개로 인식했다. 여기서는 매개된 의미를 <전형>이라 말하고, 그 매개성이 단편적이냐 다층적이냐에 따라, 단편적 전형과 매개적 전형을 구별했다. 하나의 전형론으로 자리 잡을 때는, 매개적 전형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 용어를 ‘다층적 전형’이라고 하지 않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매개>의 개념에는 일원론적이면서 <주체>의 작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주체의 작용·행위·실천의 의미가 세워지고, <문학행위(읽기/쓰기)>, <문학행위 주체(독자/저자)><sup>25)</sup>가

엄밀한 이론적 틀로 수렴하게 된다.<sup>26)</sup>

현실주의(리얼리즘) 문학에서는 역사와 현실에 대한 실천과 운동을 중요하게 본다. 한국근대문학에서 카프문학운동이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해 실천했던 것은 잘 알고 있다. 이 ‘실천’은 맑시즘의 역사인식을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신념에 찻던 사회주의 역사인식은 1990년을 전후해서 현실적 해체를 맞게 되어, 그런 식의 실천은 무력하게 되었다. <실천>의 이론적 틀을 고쳐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상 개념에 바탕을 두는 문학행위에서 ‘주체’와 ‘실천’은 지금여기에 현전하는 주체이고 실천이며, 항상 <매개적인> 의미생산 작업이다. 그 작업의 문맥은 문학 텍스트 안에서, 밖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sup>27)</sup> 이미 만들어진 의미는 계속되는 문학행위 가운데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전형이라는 것도 확보되어 있는 의미로서보다 ‘재구성’해야 하는 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 전형은 주체적인 의미 구성을 확보함으로써, 문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동시에 그 문학행위는 주체가 지금여기 있기 때문에 현실적 생산이 되고 실천이 된다. 이 경우, 역사의 의미는 늘 ‘현전하는 것’이다.

초기 리얼리즘 이론에서 전형은 현실과 역사에 대한 실천적 의미를 찾기 위한 개념이었다. ‘전형적인 것(Das Typische)’이라는 말이 원래 “역사적으로 중요하다”<sup>28)</sup>라는 뜻이라고 브레히트(Bertolt

25) 함축적 의미의 독자와 화자도 포함할 수 있다.

26) 문학에서 작품 속의 화자로 퍼스나(persona), 시적 인물, 시적 자아 등의 개념을 쓴다. 유종호는 ‘주체적 독자’란 용어로 읽기 행위 주체를 말했다. 이때 ‘주체적’이란 언어학에서 언어능력처럼, 문학에서 문학적 능력을 가지는, 곧 시를 시로서 대하는 주체를 뜻한다. 한편, 최두석이 말한 ‘시적 주체’란 리얼리즘론에서 창작방법의 차원에서 다룬 것이다. 이런 용어들은 상의 개념으로 끌어온 <주체>와는 이론적 틀을 달리한다.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5, 11-31쪽, 최두석, 『시와 리얼리즘』,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6, 113-134쪽 등 참조.

27) 『님의 침묵』 시집의 끝에 「독자에게」에서 한용운은 시인이기를 부정하며, “여러분이 나의 시를 읽을 때에 나를 슬퍼하고 스스로를 슬퍼할 줄 압니다”고 했다. 시적 의미의 문맥을 시 밖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Brecht)가 지적인 바대로, 전형의 개념에서 역사적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 변증법에서 역사의 ‘총체성’ 개념은 열려 있다고 하지만, 그 궁극점은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사회주의 완성이라는 목표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규범적이고 외재적이다. 그 목적에 쫓려있는 전형은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관념적이게 된다. 이북문학에서 종종 보여주는 리얼리티의 한계는 주어진 당 정책상의 목표를 작가가 반드시 말해야 하는 측면에서 나타난다.

기존의 전형 개념은 리얼리즘 미학과 다른 이론과의 경계, 문학과 현실의 경계, 실천 등의 문제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론과 현실의 사이에서 현실의 변화를 요구하는 실천론은 현실과 역사에 대한 인식에 달린 문제이다. 이 점은 작가적 측면만이 아니라, 문학행위 주체가 항상 지금여기 현실문제로 다시 보아야 할 부분이다. 특히 통일문학을 지향하는 일과 같은 방향성을 둘 때 실천은 반드시 현실을 직시하는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남남갈등이 현실 인식의 극명한 차이에서 나오는 것처럼, 통일문학의 형성과정에도 역사인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요컨대 우리는 남북문제가 버릴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현실점에서 값하는 답을 요구한다. 그 길은 ‘현전하는 역사’로 전환함으로써 나온다. 역사나 ‘의미’나 행위 주체에 매개되어 있을 때, 역사이고 의미이다. <매개적 전형>은 주체적 문학행위에 따라 현전하는 의미를 말한다. 여기서 의미와 행위는 서로 매개되어 있기 때문에, ‘실천이 문제’라는 식으로 뒤로 미루지 않는다. 당장에, 실천은 구현되는 것이다. 실천의 ‘일상화’<sup>29)</sup>라는 진정한 의미는, 실천이 현실에 매개되고 또한 현실이 실천에 매개되어 있는 일원론

28) 베르톨트 브레히트 지음, 서경하 옮김, 『브레히트의 리얼리즘론』, 서울: 남녘, 1989, 204쪽.

29) 백낙청이 『흔들리는 분단체제』(서울: 창작과비평사, 1998)에서 제기한 통일운동의 ‘일상화’ 문제를 나는 인식의 틀 자체를 바꾼 일원론적 사고를 통해 그 진정한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적인 의미 생산 틀에서 답할 수 있다. 과정과 결과가 순차적으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장에 실현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현전하는 값의 총체성으로 ‘주체’가 실존하고 역사가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매개적 전형은 행위주체인 내가 내 행위 결과[의미]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포함해서 말한다. 이때, 우리가 추구하는 현실과 문학은 현시점에서 값하는 실천으로서의 문학, 실천적 리얼리즘의 길로 열린다.

#### IV. 이북문학과 현실

매개적 전형은 역동적이고 잠정적인 의미이다. 즉 그것은 현실 변화를 추동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북문학에서 매개적 전형을 사회변화의 관계로 읽는 것은 ‘문학적’이냐는 비평의 관점보다 현실과의 관계를 더 예민하게 추적하기 때문이다.<sup>30)</sup> 전형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보면, 인민민주주의 인간형의 형성(1945-1953), 사회주의 개조와 반(反)소시민형(-1966), 유일사상화 속의 생산건설영웅형(-1980), 현실주의적 대응과 숨은영웅형(1980년대), 우리 식 사회주의와 애국주의형(1980년대 말-1994.7), 선군혁명문학에서 자력갱생형과 선군돌격대형(1994.7 이후)으로 이동했다.<sup>31)</sup>

이북은 강력한 유일사상으로 무장하여 정치체제가 ‘변하지 않는 체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한계 속에서도, 주민의 생활은 변화하고 있고 또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역사와 우리가 소통하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통일문학의

30) 문학에서 미적 쾌락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북문학에서 주요 주제인 혁명과 건설, 자력갱생 등은 인민의 생존투쟁과 직결되는 측면에서 현실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

31) 노귀남, 『문학 속에 나타난 북한의 경제관』,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경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242쪽 참조.

과정이다. 문학을 통해서 사회변화를 읽음으로써 공식 교류에서도 더 깊숙하게 미시적인 주민생활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다.<sup>32)</sup>

다시 말해, 문학을 통해 이북 현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의미 있는 남북 소통의 길을 만드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심한 경제난의 전후 맥락 속에 있었던 이북 체제의 위기는 한반도의 위기였다. 체제 연착륙을 위해 6자회담과 같은 국제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미시적인 주민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성과는 얻을 수 없다.

현장조사로 보면, 정치체제를 움직이는 지배계층과 일반 주민들 사이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면은 안정적이다. 세계는 북의 체제 붕괴를 예측하기도 했지만 1990년대 초에 국가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무사’했다.

그 이면의 주민들은 저마다 ‘자력갱생’하기 위한 각개 전투로 생존의 길을 찾아 갔다. 그런 가운데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사회계층은 경제적 양극화를 불러오고 기존 정치체제에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sup>33)</sup>

이런 현실을 염두에 두면서 문학을 살펴보자.

2000년 10월 당 창건 55주년의 구호는 ‘당을 따라 우리는 승리하였다’고, 스스로를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자로 규정하고서는 이를 강성대국건설에서 전변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 이 무렵 문학작품에서도 고난의 행군시기에 대한 반영의 양상이 달라졌는

32) 필자가 지난 10월 13일-18일 차관찰 인도단으로 원산을 방문했을 때, 남북정상회담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과 접촉은 불가능했다. 교류협력의 다차원 전략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문학계의 교류도 역시 다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33) ①권력자(백성을 쫓겨어먹는다) ②권력형장사(외회벌이) ③(벼물을 고여 유지하는) 장사꾼 ④배급쟁이(군대, 관료공무원) ⑤장마당 달리기 서민층 ⑥ 최하층(여기에 해당하는 인구 10% 정도는 생계유지가 어렵다) 등 새로운 6 계층이 고착되고 사회적 생산성에 저해를 주고 있다. (면담자료, 2007.9.12.)

데, 양해모의 단편 「결석대표」(『조선문학』, 2000.10)처럼, 비로소 대기근과 경제파탄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했다. 2000년 전반기까지 작품에서 보면 투쟁 구호는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경제난과 인민의 고통에 대한 구체적 현실은 거의 그리지 않았다. “간혹 황색잡초의 싹이 교묘하게 위장되어 지면에 돌아나는 경우에도 당의 지도 밑에 전투적인 평론을 통하여 제때에 뿌리 채 뽑아버린다”<sup>34)</sup>고 하거나,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지금도 충분히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구태여 적을 필요가 없다”<sup>35)</sup>고 생략하거나, “어렵게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강하게 살수 있으랴/ 오늘의 시련은/ 오늘의 조선사람들을 백배로 더 강하게 했다”<sup>36)</sup>며 좋게 덮어서 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결연한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와 같은 태도가 바뀐 것은 현실대응력이 생겼다는 말인데, 주민은 생활의 안정을 이미 회복했고, 이를 사후적으로 승리로 규정 한 국가는 주민생활을 다시 체제 안으로 정착시켜 관리·지배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sup>37)</sup>

현실 반영의 변화를 석남진의 중편소설 『비결』(문학예술출판사, 2002)을 통해서 살펴보자. 여기서는 체제와의 순응과 충돌, 갈등양상을 잘 보여준다. 식료공장 지배인은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잡도리다. 자체 식료생산과제, 원료기지의 원료생산, 에너지 해결을 위한 발전소 건설, 사회동원과제 등 네 가지 일을 모두 성공시키는 신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본업보다 부업이 더 벅찬 형국이다. 발전소 건설을 위해, 인원도 자재도 기술도 모두 자체로 해결한다. 거기에 배신과 갈등이 벌어진다.

34) 장형준, 「《조선문학》과 나」, 『조선문학』, 1999.7호, 48쪽.

35) 상동.

36) 김명익, 「조선사람들」(서사시), 『조선문학』, 2000.1호.

37) 이 측면에서 문학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예방적 변화”임을 알 수 있다. 노귀남, 「김정일시대의 북한소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관련하여」, 구로노동자문학회, 『삶글』, 2000. 가을호 참조.

사람문제가 얽힌다. 전기기사 병진은 발전소 건설에 중요한물인데, 일할 맛을 잃었다. 애인 정애가 외화벌이 기관으로 직업을 옮긴 뒤 딴 남자와 약혼식을 했으니, 배반을 당한 것이다. 발전소 돌격대 철수는 자유주의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장사를 한다고) 작업에 지장을 주었다. 이처럼 사람들의 사랑과 생활의 욕망이 뒤얽히고 있다.

자체 발전소 건설은 부족한 자재를 동원해야 한다. ‘능력 있고 수완 있는 사람’을 공장에 받자는 제안이 들어온다. 군 외화벌이사업소에 있던 사람으로 수완도 좋고, 주머니에 돈도 두둑하다는 것이다. 그가 500크바 변압기를 자체로 만드는 것보다 1000크바 변압기를 구입하겠단다. 자력갱생 한다지만, 아무래도 전문가, 전문공장의 솜씨를 따르지 못한다며 사나이는 자신 있게 일가견을 피력했다. 그 대신 공장의 생산물을 조금만 떼어 달란다. 공장의 술맛이 좋아, 공장을 위해 외화벌이도 좀 하며, 술을 외화상점에 넘길 구멍수가 있고, 상표를 만들어 붙여 선전을 하면 외화가 나온다는 것이다. 사나이는 자기가 어느 기관의 후방사업을 했는데, 거기 학교 교장을 녹음기 같은 물건으로 삶아 조개, 물고기, 미역 등으로 큰 이득을 보았다고 자랑한다. 중석은 그를 허풍이 있는 험잡꾼쯤으로 본다.

이처럼 생활과 욕망은 원칙, 후회, 타협, 자존심 등의 문제로 뒤얽히지만, 기실은 식료공장에 동원된 운전사의 꿈처럼, “빨리 터밭이 있는 두 칸짜리 단층살림집에서 단란한 가정생활을 꾸리는 수준”으로 소박하기만 하다.

위와 같은 양상은 북한 사회내부의 일상적 갈등일 텐데, 욕망의 매개적 인물이 되는 군 외화벌이사업소의 수완가를 ‘험잡꾼’으로 그림으로써, 외부세계와의 극단적 갈등을 그 밑바닥에 숨겨놓은 셈이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외화벌이 일꾼은 개인 욕망의 중요한 매개자이다.<sup>38)</sup> 작품에서 그런 인물을 부정한 것은 실제세계를 억

38) 이 작품에서 실제로 욕망이라는 어휘를 여러 번 썼다. 변화의 갈망이 묻어나온 것이다.

압하는 일이고, 그만큼 현실 속 갈등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작품에서 매개하는 실제 현실의 외화벌이 일꾼은 외부세계와 접촉하는 사람들로 체제와의 관계에서 양날의 칼을 쥔 사람과 마찬가지로이다. 즉, 경제를 지탱시키는 주력군이자 체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외부 가치의 전염자이다.<sup>39)</sup> 이런 측면의 경계(境界)는 변화의 성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매개적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문학은 현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전면의 가치(정치체제와 직결)와 이면의 숨은 가치(개인의 사적 욕망)를 동시에 보게 한다. 이런 총체적 현실을 파악한 발판 위에서 나오는 새로운 의미 생산은 남북통합과정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남북교류에서 교류수단이 되는 매개적 가치(정보, 자본, 인적 자원 등등)를 높일수록 통일희망을 실현하기 쉽다는 말이다.<sup>40)</sup> 문학으로 말하면 단편적 전형보다 문학과 현실을 동시에 요리하는 ‘매개적 전형’을 생산하는 적극적 문학행위가 통합을 순탄하게 한다.<sup>41)</sup>

## V. 통일문학 형성의 과제 - 이본정신

문학사 기술은 사후적이지만, 문학역사의 형성은 진행형이다. 지금까지 논의는 바로 진행형의 문학을 통일문학으로 수렴하려는 메타이론적 작업을 시도한 것이다. 주체의 역동적 실천을 포함하는

39)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이 사양길로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필요로 하지만, 자본 모기에 물리는 일이 없도록 ‘모기장’을 치라고 처음부터 경계했다.

40) 남남갈등은 특히 현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단편적 논리로 자기주장을 관철하려는 데서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테면 김정일 체제를 부정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처럼...

41) 노귀남, 「체제위기 속의 북한문학의 대응과 변화」(『민족문화논총』 제29집, 영남대학교, 2004.6.)는 작품을 현실과의 관계에서 파악한 전형의 의미로 분석한 작업이었다.

의미, ‘매개상’을 전형론에 수렴해 매개적 전형을 논했다.

이런 논의는 통일문학사 기술에서 이북문학 중 어떤 장르/양식을 취사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행위와는 판을 달리한다. 이북 문학 예술은 모두 주체문학예술에 복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장르/양식을 창조하고, 종자론과 같은 개념들을 개발했다. 이 ‘별종’의 창작 행위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본문에서 시도했던 메타이론으로 보면, 이런 종류의 문학행위도 포함하여, 매개자로 보면 된다.

본문에서 논의한 매개는 행위주체의 ‘지금여기’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북의 문학에서 조직, 창작, 출판 등이 당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매개’의 역동성이 어떻게 작동하겠는가?<sup>42)</sup> 이 질문은 매개 자체도 당에 ‘장악’되어 주체의 역동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한다. 그렇지만 매개자는 이것과 저것을 잇는 중간자를 의미함과 동시에, 중간자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생산 주체’를 포함하는 운동성을 갖는다. 때문에 의미생산 과정을 형성하면서 현실의 한계까지도 반영하여 진행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위주체’의 생산결과물(작품)을 텍스트로 하여 다시 의미를 재구성하는 비판의식을 포착하는 일이다. 간단히 말해, 단절되어 있던 남북문학과 달리 남북이 교류하고 소통을 시도함으로써 이런 메타이론적 탐색을 포함해서 의미 재구성이 일어나게 된다.<sup>43)</sup>

현재적 의미의 재구성 작업은 우리 문학사 속의 ‘이야기판’에 이미 있었던 일이다. 춘향전, 흥부전 등은 정본을 가림 없이 추임새도 판 속으로 수렴하여 ‘지금여기’ 벌어지는 장을 그때그때 의미의 최고로 삼았다. 그와 같은 지속적인 재창조로 새로운 의미의

42) 『2007 한민족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2007.11.3.)에서 박승희의 질문이다.

43) 노귀남, 「문학작품으로 본 북한의 변화」(웹진 『불교포커스』, 2006.12.29)에서 이북문학의 주제를 이남의 독자가 비판적으로 읽기함으로써 문학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면서 의미재생산을 하게 된다. 이런 작업은 이북의 미시적 사회변화에 새로운 매개자로 작동하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장을 만들어왔다.

이본이란 고정되고 완결된 문학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모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 점은 구비문학의 주요 특성이지만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고전소설의 경우 기록되어 전해지면서도 이본이 계속 만들어 졌다. 그것은 작품이 독자의 요구와 시대에 따라 변모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본이 말해주는 문화전통의 정신. 원본이 중요시 되지 않고, 이본들이 각기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의미를 자유롭게 담아갔던 점에 주목하자. 지금여기의 현장에서, 문학예술을 늘 <주체>가 되어 즐기고 만들어 간다는, 민초들의 능동적 참여 정신이 거기에 있다. 스스로 끊임없이 만들기 때문에 현장에는 추임새가 있고, 그 현장을 통째로 움직여 소리판을 완성한다. 이 정신에서 보면 주어진 의미로 고정되어 있는 <원본>은 오히려 거부한다.

남과 북의 현대판 춘향전은 우리 역사 가운데 동등한 가치를 갖는 각기 다른 이본이다. 남북통일의 역사를 만든다고 볼 때, 동등한 권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더욱 풍성한 통일역사를 만드는 시대정신이 바로 “이본정신”과 닮아있다고 본다.

실제 통일문학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6.15민족문학인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거기서 어떤 담론을 만들어내는지가 실천적인 통합의 관건이다.

2007년 남북공동선언 제1항에서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선언적 의미는 그 정신을 담아내는 통일철학, 통일문학철학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인식과 실천을 관통하는 메타이론적 작업을 공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문에서 논의했던 매개와 전형을 생산하는 문학행위주체를 각성함으로써, 전통 문학에서 끊임없이 이본을 재생산했듯이 우리

는 지금여기 의미 생산의 중요성을 발견한다.

우리 전통에서 ‘복고창신’하면, 민족 공존의 길을 여는 현재의 담론은 더욱 풍부해 질 수 있다. 냉전 상태의 분단시대에는 춘향 것처럼 남북이 공유하는 전통을 각각의 매개자로 놓고 각기 다른 의미를 생산했다면, 교류협력시대가 열리고 통일문학을 고민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그런 전통을 남북 공유의 매개자로 재인식하는 새로운 미학을 찾아야만 한다. 주체가 현장에서 살아 있는 의미생산 전통을 생각할 때, 본문에서 제기한 메타이론은 통일문학을 지향하는 담론과정에서 발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상, 사실, 가치, 행위주체, 매개, 전형, 통일문학, 이본.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명익, 「조선사람들」(서사시), 『조선문학』, 2000.1.  
석남진, 『비결』,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양해모, 「결석대표」, 『조선문학』, 2000.10.  
장형준, 「《조선문학》과 나」, 『조선문학』, 1999.7.

### 2. 단행본

- 김성수, 「2007년 남북정상선언과 문학분야 교류 협력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최, 『2007 남북정상회담 성과 분석 및 문화분야 후속과제 개발』(제46차통일문화정책포럼), 2007.10.25.  
김윤식, 「남북한 현대문학사 서술 방향에 대한 예비 고찰—위기의식의 두 양상」, 『민연학술세미나』, 1995.8.29.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 김재용, 「이북문학의 흐름: 혁명적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의 긴장」,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언어와 문학』,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김중하 편,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울: 국학자료원, 2005.
- 노귀남, 「문학 속에 나타난 북한의 경제관」,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경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 노귀남, 「문학작품으로 본 북한의 변화」, 웹진 『불교포커스』  
<http://www.bulgyofocus.net/news/read.php>, 2006.12.29.
- 노귀남, 「북한이 실리주의로 가는 길」,  
<http://www.bulgyofocus.net/news/read.php>, 2006.12.9.
- 노귀남, 「체제위기 속의 북한문학의 대응과 변화」, 『민족문화논총』 제 29집, 영남대학교, 2004.6.
- 노귀남, 「통일문제 문학과 현실의 거리-북한소설에서 ‘실천적 리얼리즘’의 모색」,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1998.
- 노귀남, 「한용운 시의 ‘상(相)’ 연구-시집 『님의 침묵』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 대학원, 1996.2.
-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 베르톨트 브레히트 지음, 서경하 옮김, 『브레히트의 리얼리즘론』, 서울: 남녘, 1989.
-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언어와 문학』,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5.
- 윤지관, 「통일을 실천하는 문학-민족문학의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리얼리즘의 옹호』, 서울: 실천문학사, 1996.
- 조영일, 「이젠 ‘그들만의 문학’ ... 근대문학은 끝났다」, 『한겨레』, 2007. 10.20.
-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서울: 나남출판, 1995.
- 최두석, 『시와 리얼리즘』,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6.
- 최원규, 『북한은 어디로』,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 최원식, 「근대문학 종언론은 상상 혹은 소동일 뿐」, 『한겨레』, 2007. 10.27.

Solving of the divided literature & Adoption of the  
North Korean literature.  
- For the formation of unified literature

Noh, Gwi-Nam

This paper is a study on meta-theory for solving of the divided literature. The North Korean literature is measured by our standard. So we sometimes guess that's short of reality, or schematic story. The North Korean literature is a product of an literary action in North Korea. And it respond to a political system, therefore we need concepts of 'mediator' and 'type'. The two key words are useful to study the relations between literary texts and a realities of life.

The subject makes meanings of the realities of life. A meaning is generated from triangle(subject-object-meaning), from not two-legged(object-meaning). Mediator means to join two things together, and it includes movement of the subject in order to get one meaning. So that meson, mediator is not a fixed thing.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meaning, I(the subject) am always alive to intervene in making post-meaning, by the medium of preceding-meaning. This process is practical movement even reflecting contradictory of the actual.

The type is like stepping stones in order to find a practical meaning in our real life and history. The mediator-type contains self-reflection and reconsider about our own actions of meaning-production. Here and now, our works open a 'practical realism literature'.

In short, the subject produces new meaning according to the critical intervention.

While those works we understand each other through the medium of literature. And we could respond to the real situation of the North Korea

people. The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are a process for the formation of unified literature.

Key words : laksana, facts, values, the subject, mediator, type, unified literature, variant

노귀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주소: 서울 구로구 개봉동 335-1 동인아파트 310호  
전화번호: 010-7129-4286  
전자우편: knownam@hanmail.net

이 논문은	2007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7년	12월	15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12월	30일	간행함